

2021
01

병리협보

KAMT Monthly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2 KAMT NEWS

27대 회장 및 감사
선거체제 도입

03 KAMT NEWS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생활수기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진행

04 KAMT NEWS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대한 기준 요청

07 INTERVIEW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 인터뷰

08 COVID-19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의
임상병리사

제456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 대한민국 전통 유전자분석 전문기업, 코젠바이오텍
- Bright Technology, right decision. 브라이텍
- UNI-VERSITY를 넘어 NEW VERSITY로 신한대학교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우주, 하성일
기자 최현빈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고 희망의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19 3차 유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26대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 함께하는 협회'를 구호로 3년 동안 회원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2020년에는 몇 가지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도회 및 분과학회와의 소통을 통해 협회비 납부 정회원 기준, 대의원 수 조정, 시도회 교부금 지급율 조정과 분과학회 납부금 하향 및 사이버 교육 강의 제작 지원 등 주요 현안을 함께 해결하였으며, 정회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및 중소병의원 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6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해 온 중소병의원 임금 가이드라인 논의가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내과외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대졸 초임 기준 2,800만원으로 정립했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은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회원님들이 기다려온 정책인 만큼 차기 27대 집행부부터는 집행부 내에 중소병의원부를 신설해 전국의 중소 병·의원에서 회원님들이 합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과외과사회와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보건 의료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임상병리사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도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우리 회원님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시행주체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 및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임상병리사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특수건강검진 등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띄게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의사, 간호사만 알려진다'는 회원님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진단검사 분야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왔지만, 재난 상황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현실에 화가 나면서 협회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송구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지난해 무엇보다도 언론사 및 유관 기관에 지속적으로 우리 임상병리사를 소개할 때 '임상병리사'라는 직군명이 정확히 표현되도록 요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방송 및 언론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검체 채취 현장의 소식을 전할 때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제대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2021년에는 우리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국민들에게 보다 공고히 각인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저는 우리 임상병리사 회원님들의 피로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사명감으로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협회는 회원분들께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1년은 우리모두가 동반자로서 서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협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떤 경우가 닥쳐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7대 회장 및 감사 선거체제 돌입

우리 협회가 2021년 2월 20일 예정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분경)는 지난 12월 9일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 상건례를 가지고 차기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내용들을 논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경 위원장(삼성서울병원), 최혜숙(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민영훈(씨젠의료재단), 최병호(아주대학교병원), 이태복(서울대학교병원외생염연구원) 위원으로 총 5인이다. 구분경 선거관리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지만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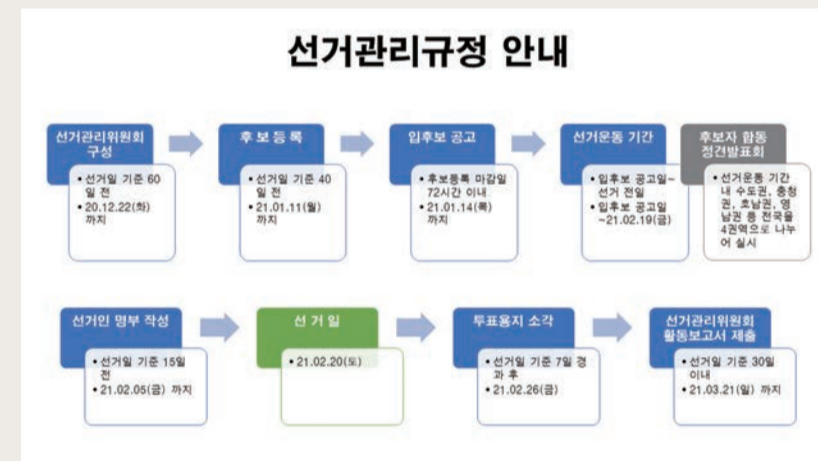
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해주시고, 회원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소중한 권리 행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회원들께 약속드리며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리를 할 것입니다”라며 회원 모두가 깨끗하고 단합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하길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7대 회장 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제27대 협회장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월 11일, 회장 및 부회장, 감사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가운데 회원들 사이에서도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회장 선거에 대해 낯설 수 있는 회원들을 위해 우리 협회의 선거 과정을 정리해 봤다. 우리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번 27대 회장 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을 중앙회장이 2명, 시도회장 대표가 1명, 분과학회대표 1명, 총회회장 1명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해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회원으로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권 없이 업무를 진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기준 60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이번 27대 회장 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다.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장(부회장), 감사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거 40일 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의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접수와 함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72시간 내에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입후보 공고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입후보 공고일부터 선거 전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며,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들은 합동 정견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 정견발표회는 선거운동 기간 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을 4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선거는 2월 20일 토요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진행된다. 우리 협회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선출직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뽑으며, 정회원

300명까지는 100명당 1명, 대의원 수가 300명 초과시에서는 200명당 1명의 비율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100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을 추가하며, 각 지회의 최소 대의원 수는 4명으로 하되, 대의원 중 1명은 반드시 중환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의원 소속 회원을 포함해야 한다. 당연직 대의원은 중앙회 임원과 전직 협회장, 대의원 총회 의장단이 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다수 회원들은 좋은 정책과 공약을 갖추고 회원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후보가 협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어떤 후보들이 도전하고, 누가 당선자가 될까?



중앙회소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임상병리사 생활수기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진행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따라 온라인으로 시상식 진행
- 대상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승민 회원의 ‘코로나, 그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9편이 응모했으며, 그중 8편이 심사를 거쳐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에는 이승민 회원(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코로나, 그 후’ 작품이 선정됐다. ‘코로나, 그 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각 날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김은희 회원(메리놀병원)의 ‘COVID-19, 우리는 초극할 수 있다’, 윤미영 회원(좋은삼정병원)의 ‘코로나와 함께한 11월 29일’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도 5편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상장과 상금(대상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10만원)은 개별로 전달할 계획이다. 대상을 수상한 이승민 회원은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해내고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었다”며 “전국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하루 하루에 건투를 빌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장인호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검사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소중한 기록을 남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사명감으로 조금만 더 힘내 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선임

우리 협회를 포함해 8개 보건의료기사 단체가 속해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신임 회장에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맡게 되었다. 의기총은 지난 12월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소재 대한치위생사협회회관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장인호 협회장을 비롯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보건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의기총을 통해 감염관리실에 임상병리사 인력배치 법제화, 검사 건수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2021년에도 의기총과 함께 정부 및 유관단체를 만나는 등 임상병리사의 업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27대 협회장(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

본 협회의 제27대 협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의 입후보 등록을 분회 정관 제11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선거관리규정 제14조)

- ① 회장 및 감사: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회의 임원직을 3년 이상 재직한 자
- ② 부회장: 선거일 현재 중앙회 임원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선거 후 임기만료시까지 잔여 재직기간 합산이 3년이 되는 자는 회장이 입후보할 때 리닝메이트로 등록
- ③ ①, ②항 이외의 자가 회장 및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할 경우 별도의 서식에 당해년도 대의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이 때, 대의원 추천서 제출 대상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의대의원이 동일 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군에 복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④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정관 제7조의 의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입후보 등록(선거관리규정 제12조)

- ① 등록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신청서
- 이력서(사진부착)
- 경력증명서(협회 발행)
- 개인정보 공개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입후보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계획 및 예산안(선택사항)
- ② 등록방법: 이메일(E-Mail), 방문 또는 우편접수
- ③ 등록기한: 2021년 1월 11일(월) 23:59까지
- 이메일의 경우 협회 대표 이메일로 발송한 시간이 등록기한 이전분에 한함
- 방문 또는 우편의 경우 등록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④ 등록주소
- 이메일: kamt@daum.net
- 행정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02-3291-5435)
- ⑤ 입후보 등록서류: 협회 홈페이지(www.kamt.or.kr)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3. 기타사항

- ①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②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27대 선거관리위원장 구분경



Aerospray® Slide Stainer / Cytocentrifuge



‘전 세계 점유율 압도적 1위’의
믿을 수 있는 염색성

4분 30초의 초고속 염색 /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인텔리전트 클리닝 / 자동 시약량 모니터링 / Cytocentrifuge 기능 / 다양한 염색성 저장 및 편리한 사용 / 시간당 400매의 고속처리 / 폐수 용기 모니터링 / 염색데이터 보호 기능 / 추적관리기능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그람염색기 ■ 결핵염색기 ■ 혈액염색기 ■ 세포염색기(New)



수입원: (주)브라이텍
Tel: 02-948-8246 Fax: 02-948-7559 Email: cs.brightek@gmail.com Web: www.brightek.co.kr

협력사
(주)성현메디텍 / 대원약품 / 동방메디텍 / (주)동성메디칼 / 프라임메디텍 / 길림 / (주)하메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서 '임상병리사 긴급모집' 한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12월 8일부터 모집 실시
 - 파견 임상병리사 수당 하루 23~28만원, 숙식비 추가 지급
 우리 협회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임상병리사 모집에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2월 8일부터 전국 코로나19 치료 대응 현장에서 근무할 임상병리사를 상시 모집한다.
 앞서 우리 협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 3월에도 임상병리사를 모집한 바 있다.
 모집대상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로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 등을 담당한다. 모집된 임상병리사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배치되며, 코로나19 치료 병원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 기관은 다를 수 있다.
 임상병리사 근무 수당은 파견 장소에 따라 위급수당을 포함해 하루 23만원~28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숙식비 등은 별도 제공된다. 파견기간 동안 숙박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해 특별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이 지원된다. 단, 각 시·도에서 숙박을 제공할 시 숙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협회는 임상병리사를 모집하는 공문을 각 시도회와 분과학회에 전달하는 한편, 한국임상병리학과수협협회에도 올해 국가고시에 합격한 새로운 임상병리사 회원들도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상병리사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모집 조서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보건복지부 인력관리팀 담당자(k2013@korea.kr)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44-202-1838)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코로나19 대응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대한 기준 요청

방역 당국이 일선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간담보험을 적용했지만, 정작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은 보호장비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협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는 개인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고충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개인병원과 요양병원은 환자를 위한 1차적인 처치만 하는 경우가 많아 상급 병원에 비해 의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우리 협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관한 세부 지침과 함께 요양병원 및 개인병원에 전신 보호복과 방역 관련 물품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2월 30일에는 장인호 협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협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응답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하는 '코로나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지침을 공유해 회원들이 병원에 적합한 보호장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12.01 ~ 20.12.31

- ▶ 12월 2일: 보수교육위원회 회의가 협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화상회의와 병행해 열렸다. 2021년 시도회 및 분과학회, 외부기관 보수교육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 ▶ 12월 3일: 제457차 상임이사회를 화상회의와 병행해 진행했다. 각 부서에서 ▲2020년 행정지도감사 실시 ▲교부금 지급 ▲임상병리학과 학생실습 동영상 제작 ▲2021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접수 내역 ▲협회 홈페이지 내 정회원 혜택 메뉴 수정 등의 건이 보고되었다. 부의안건으로는 ▲2020년 예산 전용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개발운영지원금 지급 ▲상근임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 12월 4일: 화상으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8차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11개 단체가 참석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국회 토론회 등에 관해 논의했다.
- ▶ 12월 5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생활수기 공모전 접수 작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홈페이지 2차 고도화에 대해 정보통신부 회의가 열렸다.
- ▶ 12월 8일: 화상으로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2021년 전문임상병리사 운영계획안, 육안병리사(Pathologist Assistant) 양성 필요성에 관해 논의했다.
- ▶ 12월 10, 17, 28일: 학생실습 동영상 TF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동영상 콘텐츠 개발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제작된 동영상 활용 계획을 논의했다.
- ▶ 12월 29일: 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무부 회의를 진행했다.
- ▶ 12월 30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행정지도감사와 관련해 총무부 회의를 진행했다.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12.01 ~ 20.12.31

- ▶ 12월 1일: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총평회를 진행
- ▶ 12월 2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
- ▶ 12월 4일: 서울역 참좋은친구들 무료급식소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봉사를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진행
- ▶ 12월 7일: 협회관 2층 서울사회 강의실에서 회관운영위원회 회의와 함께 회장단 회의를 진행
- ▶ 12월 9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 ▶ 12월 10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년 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회의에 참석
- ▶ 12월 12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상회의와 병행해 열린 제167차 정기이사회를 진행. 중앙회 각 부서의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2020년 예산 전용 ▲제규정 개정 및 제정의 건 등에 관해 논의
- ▶ 12월 17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AAMLS 아시아임상병리사연맹 상임이사회 참석.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AAMLS 재무상황에 관해 논의
- ▶ 12월 19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수기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
- ▶ 12월 21일: 대한치과위생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진행 상황, 차기 의기총 대표회장 선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의료기사단체 인원 추가에 관해 논의
- ▶ 12월 30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가칭)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및 요양병원 및 개인병원에 전신 보호복, 방역 관련 물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대구시회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남구에 이웃돕기 쌀 및 라면 기탁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유황림)는 연말을 맞이해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3일, 대구시 남구청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백미 10Kg 70포대와 라면 70박스를 기탁했다.

대구시회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2012년 연탄배달 봉사를 시작으로 매년 남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임상병리사 출신의 구의원인 이정현 의원이 참석해 후원에 힘을 더했다.
 조재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임에도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매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전해줘서 감사하다"며 "기탁해준 쌀과 라면은 꼭 필요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황림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장은 "매년 겨울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된 아동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며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회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이웃사랑 성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회장 신영숙)는 지난 12월 7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도회에서 지역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함께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의료비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영숙 회장은 이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기탁식을 가지고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며 "제주도회는 앞으로도 주위를 돌아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지회별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및 장소

지회명	총회 개최일	총회 개최시간	총회 장소
서울시회	1월 22일	19:00~21:00	비대면(협회 5층)
부산시회	1월 30일	미정	미정
대구시회	1월 22일	18:00~20:00	미정
인천시회	1월 15일	18:00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3층 마리아홀
광주시회	1월 15일	19:00~21:00	광주 남구 효우로 200 씨젠의료재단
대전시회	1월 8일	미정	(화상 온라인으로 진행) 당일 회장단경선은 온라인으로 진행예정
울산시회	1월 15일	19:00~21:00	(우)44722 굿모닝병원 울산 남구 삼산로 110 3층 대강당
경기도회	1월 23일	15:00	분당제생병원 본관4층 대강당(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20)
강원도회	1월 23일	14:00~16:00	춘천베어스호텔
충북도회	1월 9일	14:00~17:00	충청북도회 사무국
충남도회	1월 16일	15:30~18:00	천안 축구센터 2층 대세미나실B(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전북도회	1월 23일	16:30	초원갈비(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51)
전남도회	1월 30일	14:00~18:00	장흥 보건소 2층 대회의실
경북도회	1월 16일	16:00~18:00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5 더케이호텔 경주
경남도회	1월 30일	14:00~15: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21 ks빌딩401호 경남임상병리사회
제주도회	1월 16일	16:00~18:00	제주대학교병원 2층 세미나실(제주시 아란13길 15)

2021년 면허신고 위해 필수과목 무료로 제공

올해부터 임상병리사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바뀐 규정으로 인해 면허신고를 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1월 8일(금)부터 무료 필수교육을 개설한다.

무료 필수과목은 ▲ 아동학대와 예방 ▲ 자살예방교육 ▲ 감염관리: 항균제 내성세균의 관리 ▲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제공되며, 2시간 이상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2021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2021년 온라인 보수교육 개설

2021년 온라인 보수교육이 1월 8일(금)부터 개설된다. 임상면역학, 임상미생물학, 임상생리학, 임상수혈학, 임상유전학, 임상화학, 조직세포학 분야의 강의가 개설되며 1시간(1평점)당 정회원 은 10,000원, 준회원은 18,125원에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1년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보수교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보수교육 결제 진행 단계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수연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연도의 모자란 보수교육 평점도 채울 수 있다. 단, 필수과목 이수연도 선택은 2019년~2021년만 가능하다.

순번	과정정보
1	임상면역학(1-2) 1강 : 면역학의 입문 2강 : 질병과 면역의 관계
2	임상면역학(3-4) 1강 : 면역계의 구성요소 2강 : 항원과 항체의 관계
3	임상면역학(5-6) 1강 : 바이러스성 감염의 종류와 HAV, HCV 2강 : B형 간염바이러스
4	임상면역학(7-8) 1강 : 자가면역질환의 이해 2강 : 자가면역검사기법 및 판독법
5	임상면역학(9-10) 1강 : 감염질환의 이해와 혈청학적 검사기법 2강 : HIV, Syphilis 감염의 혈청학적 검사
6	임상미생물학(1-2) 1강 : 검체별 처리 및 배지선택과 접종 1 2강 : 검체별 처리 및 배지선택과 접종 2
7	임상미생물학(11-12) 1강 : 무산소성 세균의 분류와 배양 2강 : 무산소성 세균의 분리와 동정
8	임상미생물학(13-14) 1강 : Neisseria, Moraxella 균의 동정 2강 : Chromobacterium, Eikenella, Kingella, Acinetobacter 균의 동정
9	임상미생물학(15-16) 1강 : 그림양성 막대균의 동정 1 2강 : 그림양성 막대균의 동정 2
10	임상미생물학(17-18) 1강 : Disk diffusion법에 의한 감수성 검사 술기 2강 : CLSI기준에 따른 감수성 보고기준
11	임상미생물학(19-20) 1강 : 희석법 항균제 감수성검사의 원리 2강 :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항균제감수성검사
12	임상미생물학(3-4) 1강 : 임상검체별 집락 판독 기준 1 2강 : 임상검체별 집락 판독 기준 2
13	임상미생물학(5-6) 1강 : 임상 미생물 염색 1 2강 : 임상 미생물 염색 2
14	임상미생물학(7-8) 1강 : 그림 양성 균의 동정 1
15	임상미생물학(9-10) 1강 : 그림양성 막대균의 소개 2강 : 그림양성 막대균의 동정 가이드라인 소개
16	임상생리학(니혈류초음파)(1-2) 1강 : 니혈류 초음파 개요 2강 : 기본 TCD 검사방법
17	임상생리학(니혈류초음파)(3-4) 1강 : TCD임상적 적용 1 2강 : TCD임상적 적용 2
18	임상생리학(니혈류초음파)(5-6) 1강 : TCD임상적 적용 3 2강 : TCD임상적 적용 4
19	임상생리학(니혈류초음파)(7-8) 1강 : TCD임상적 적용 5 2강 : TCD임상적 적용 6
20	임상생리학(니혈류초음파)(9-10) 1강 : TCD임상적 적용 7 2강 : TCD임상적 적용 8
21	임상생리학(심장초음파)(1-2) 1강 : 심장의 해부생리 심장초음파검사 개요 2강 : 심장의 해부와 순환
22	임상생리학(심장초음파)(11-12) 1강 : 판막질환(II) 평가방법 2강 : 심근증 평가방법
23	임상생리학(심장초음파)(13-14) 1강 : 허혈성심질환 평가방법 2강 : 특수 심장초음파
24	임상생리학(심장초음파)(15-16) 1강 : 심장초음파 실기 I(심장기능) 2강 : 심장초음파 실기II(판막기능)
25	임상생리학(심장초음파)(3-4) 1강 : 초음파 진단 장치 2강 : 경흉부 심초음파검사 이해
26	임상생리학(심장초음파)(5-6) 1강 : 심장 내경 측정 2강 : 심장 수축기능 평가방법
27	임상생리학(심장초음파)(7-8) 1강 : 심장의 혈역학적 평가방법 2강 : 심장의 이완기능 평가방법
28	임상생리학(심장초음파)(9-10) 1강 : 판막질환(I) 평가방법 2강 : 판막질환(II) 평가방법
29	임상생리학(심전도)(1-2) 1강 : 심장의 해부생리 2강 : 심장의 전기생리
30	임상생리학(심전도)(11-12) 1강 : 서맥형 부정맥 ① 2강 : 서맥형 부정맥 ②
31	임상생리학(심전도)(13-14) 1강 : 빈맥형부정맥① 2강 : 빈맥형부정맥②
32	임상생리학(심전도)(15-16) 1강 : 인공심장박동기 심전도 2강 : 심전도 case 연습 및 해설
33	임상생리학(심전도)(3-4) 1강 : 심전도 유도와 기록 2강 : 심전도 기본 파형(정상)
34	임상생리학(심전도)(5-6) 1강 : 심전도 검사의 실제 ① 2강 : 심전도 검사의 실제 ②
35	임상생리학(심전도)(7-8) 1강 : 심전도 측정하기 2강 : 정상 심전도
36	임상생리학(심전도)(9-10) 1강 : 파형의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것 ① 2강 : 파형의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것 ②
37	임상생리학(폐기능)(1-2) 1강 : 폐기능검사를 위한 해부생리 2강 : 폐기능검사를 위한 기본개념(1)
38	임상생리학(폐기능)(3-4) 1강 : 폐기능검사를 위한 기본개념(2) 2강 : 폐기능검사의 준비(1)
39	임상생리학(폐기능)(5-6) 1강 : 폐기능검사의 준비(2) 2강 : 폐기능검사 방법(1)
40	임상생리학(폐기능)(7-8) 1강 : 폐기능검사 방법(2) 2강 : 폐활량 측정시 오류 및 해결방안(1)
41	임상생리학(폐기능)(9-10) 1강 : 폐활량 측정시 오류 및 해결방안(2) 2강 : 폐활량측정 결과 및 해석
42	임상수혈학(1-2) 1강 : 혈액제제 2강 : 적혈구 항원 및 항체
43	임상수혈학(3-4) 1강 : ABO grouping 2강 : 기타 - 혈액형
44	임상수혈학(5-6) 1강 : Rh_typing 2강 : Ab_screening & Identification & DAT
45	임상수혈학(7-8) 1강 : 교차시험 2강 : 수혈부작용

면허신고를 위한 필수과목은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만 인정되기 때문에 근무처에서 진행되는 법정외무교육은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종합학술대회, 2020년 시도회 및 분과학회 웹세미나 보수교육 이수자는 필수과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돼 추가로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보수교육 및 무료 필수과목은 협회 홈페이지(https://www.kamt.or.kr)에서 이수할 수 있다.

46	임상유전학(분자유전)(1-2) 1강 : 핵산의 이해 및 추출(열액) 2강 : 핵산의 이해 및 추출(조직)
47	임상유전학(분자유전)(3-4) 1강 : 염기서열검사법(Sequencing analysis) 2강 : DNA 절편검사법(Fragment analysis)
48	임상유전학(분자유전)(5-6) 1강 : NGS의 이해1 2강 : NGS의 이해2
49	임상유전학(분자유전)(7-8) 1강 : 분자유전 분야1 2강 : 분자유전 분야2
50	임상유전학(분자유전)(9-10) 1강 : 분자유전검사의 질관리 1 2강 : 분자유전검사의 질관리 2
51	임상유전학(세포유전)(1-2) 1강 : 세포유전검사의 개요 2강 : 염색체검사의 방법
52	임상유전학(세포유전)(3-4) 1강 : 염색체 핵형표기요령 1강 2강 : 염색체 핵형표기요령 2강
53	임상유전학(세포유전)(5-6) 1강 : 형광동소교잡법(FISH) 검사의 개요 2강 : 형광동소교잡법(FISH) 검사의 방법
54	임상핵의학(09-10) 1강 : 핵의학 개론 & 원자와 방사선 2강 : 방사선 안전관리
55	임상핵의학(1-2) 1강 : 방사면역측정법 2강 : 정도관리 1
56	임상핵의학(11-12) 1강 : 방사능 측정 2강 : 방사면역 측정법 & 원자력 관계 법령
57	임상핵의학(13-14) 1강 : 질관리 및 문서관리시스템 2강 : 핵의학 정도관리 개요
58	임상핵의학(15-16) 1강 : ISO 15189 인정제도 이해 2강 : ISO 15189 인정제도 운영
59	임상핵의학(17-18) 1강 : 핵의학 검사실무1 2강 : 핵의학 검사실무2
60	임상핵의학(19-20) 1강 : 핵의학 검사실무3 2강 : 핵의학 검사실무4
61	임상핵의학(21-22) 1강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2강 : 방사성의약품의 종류
62	임상핵의학(23-24) 1강 : 방사성의약품 합성방법 2강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63	임상핵의학(3-4) 1강 : 정도관리 2 2강 : 정도관리 3
64	임상핵의학(5-6) 1강 : 임상핵의학 주요검사1 2강 : 임상핵의학 주요검사2
65	임상핵의학(7-8) 1강 : 임상핵의학 주요검사 3 2강 : 임상핵의학 주요검사 4
66	임상혈액학(1-2) 1강 : 채혈의 기본 2강 : 응고검사 검체 처리
67	임상혈액학(11-12) 1강 : 비정상 백혈구 세포 형태 3 (Lymphoid 외) 2강 : 적혈구 세포 형태
68	임상혈액학(13-14) 1강 : CBC 장비도입 시 평가항목 2강 : 참고치 설정 및 검증방법 Calibration
69	임상혈액학(15-16) 1강 : 유세포분석기 장비원리 2강 : Lymphocyte subset 검사
70	임상혈액학(17-18) 1강 : 혈소판 분석과 분석기기 2강 : 혈소판 분석간섭 및 문제해결
71	임상혈액학(19-20) 1강 : 지혈기전의 개요 (I) : 혈소판 중심으로 2강 : 지혈기전의 개요 (II) : 응고검사를 중심으로
72	임상혈액학(21-22) 1강 : 자동혈액응고 분석기의 이해 2강 : ISI, INR 정의와 Calibration, NPP 제조
73	임상혈액학(23-24) 1강 : Lot 변경(Control과 Reagent) 2강 : 분석 오차와 사무적 착오
74	임상혈액학(25-26) 1강 : 체액세포검사(상) 2강 : 체액세포검사(하)
75	임상혈액학(3-4) 1강 : Platelet 2강 : PFA-200 기기
76	임상혈액학(5-6) 1강 : 신임 인증과 외부 정도관리 2강 : 백혈구 백분율
77	임상혈액학(7-8) 1강 : Beckman coulter 자동혈구분석기 결과분석 1 2강 : Beckman coulter 자동혈구분석기 결과분석 2
78	임상혈액학(9-10) 1강 : 백혈구 세포 형태 1(5diff) 2강 : 비정상 세포 형태 2(Myeloid)
79	임상화학(1-2) 1강 : 간기능 검사(1) 2강 : 간기능 검사(2)
80	임상화학(3-4) 1강 : 비단백질소와 공팔기능(1) 2강 : 비단백질소와 공팔기능(2)
81	임상화학(5-6) 1강 : 비단백질소와 공팔기능(3) 2강 : 심장기능검사(1)
82	임상화학(7-8) 1강 : 심장기능검사(2) 2강 : 심장기능검사(3)
83	임상화학(9-10) 1강 : 내분비계(1) 2강 : 내분비계(2)
84	임상화학(요검검)(1-2) 1강 : 소변 검사 개요 2강 : 검검1 : 표본제작 및 현미경 검사법
85	임상화학(요검검)(3-4) 1강 : 검검2 : 세포 및 원주 2강 : 검검3 : 결정
86	조직세포학(육안병리)(1-2) 1강 : 육안검사의 일반 원칙 2강 : 육안소견 기술
87	조직세포학(육안병리)(3-4) 1강 : 위장관계 육안검사 2강 : 여성 생식기계 육안검사
88	중소 병-의원 교육(1-2) 1강 : 검사지침서 준비하기 1 2강 : 검사지침서 준비하기 2
89	중소 병-의원 교육(3-4) 1강 : 검사지침서 준비하기 3 2강 : 업무지침서 준비하기
90	중소 병-의원 교육(5-6) 1강 : 평가 준비하기 1 2강 : 평가 준비하기 2
91	중소 병-의원 교육(7-8) 1강 : 평가 준비하기 3 2강 : 평가 준비하기 4

※ 환불규정 :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재생 이후 환불불가

2020년도 제48회 임상병리사 합격자 발표

한국보건직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12월 13일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 3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20년도 제48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2월 28일에 발표했다. 제48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전체 2,918명의 응시자 중 2,355명이 합격하여 80.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80점 만점에 277점(98.9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경북대학교 박형진, 동남보건대학교 김영준, 신성대학교 윤예린 학생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에서 물리치료사는 전체 5,317명의 응시자 중 4,266명이, 치과위생사는 전체 5,689명의 응시자 중 4,213명이 합격하여 80.2 / 74.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제48회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 인터뷰

윤예린

(신성대학교)

Q. 간단하게 본인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은 윤예린입니다. 현재 신성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Q. 임상병리학에 입학하게 된 배경은?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중 담임 선생님께서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채혈을 한다는 것만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정보를 찾아 보니 임상병리사가 활동하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어 입학했습니다.

Q. 대학생할 동안 자기 계발을 위해 어떤 노력과 활동을 하셨나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봉사활동을 하여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이를 학습에 적용하니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튜터링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니 공부한 내용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기 전에는 서로 문제를 내주며 아는 것은 확실히 새겼고 모르는 것은 서로 채워주며 학습했습니다.

Q.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팁이 있다면?

여러 차례 모의고사를 보고 오답노트를 작성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 틀리는 문제는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에 붙여 두고 시간이 될 때마다 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며 공부를 했는데 이런 과정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국가시험은 반복해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앞으로의 각오,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병원에서 실습을 출결해 했던 기억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생리기능파트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병리과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임상병리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국가고시 수석 합격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나가는 멋진 임상병리사가 되어 이를 알리고 싶습니다.

김명준

(동남보건대학교)

Q. 임상병리학에 입학하게 된 배경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심코 참여했던 특강이 제 삶의 특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창 진료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현직에 계시는 임상병리사분께서 특강강사로 참여하셔서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직업이고, 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들어 흥미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강이 끝난 후 커뮤니티에 검색해봤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직업정보에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를 돕는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치료와 진단을 돕는 일이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임상병리사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Q. 대학생할 동안 자기 계발을 위해 어떤 노력과 활동을 하셨나요?

1학년때부터 모든 전공수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공수업 내용은 임상병리사의 직무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학할 때부터 국가고시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합격하는 것이 아닌, 시험 과목들의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시간엔 국가고시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완벽히 숙습하기 위해 전공서적 이외의 자료도 찾아가며 여러 번 반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방학기간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다음 학기를 위한 충전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Q.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팁이 있다면?

제가 가진 두 가지의 팁 중 첫 번째는 복습과 반복이었습니다. 강의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배웠던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대로 암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빈 A4용지에 기존에 노트에 작성한 내용과 똑같이 적어보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의 20%도 작성하지 못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빠진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른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암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작성해보며 정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준비하며 서로가 자신 있는 전공과목을 상대방에게 설명해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진행하는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했습니다. 서로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설명 해주는 식의 스터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동기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결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일정부분은 주변 지인 혹은 동기들과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꽤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까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강의가 모두 사이버 강의로 바뀌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되었습니다. 현장강의에 비해 집중도가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강의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번의 강의에 집중이 어렵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해가며 공부했습니다. 현장 강의와 다르게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교수님께 바로 여쭙볼 수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놓고 정리하여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친절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앞으로의 각오,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임상병리사의 자존심은 검사결과다’ 라고 전임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임상병리사를 목표로 하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19 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기에 대한민국 방역의 최전방에서 힘쓰고 계신 임상병리사 선배님들과 함께 코로나 19 진단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동참하여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사의 학문적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직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역량을 넓히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여러 임상병리사 분야 중 하나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목표는 임상병리사계의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 분들께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되도록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역량 발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역량이 넓어지고 경력이 쌓여간다고 자만하지 않으며, 언제까지나 환자를 우선시 할 줄 아는 임상병리사로 살아 가고 싶습니다.

박형진

(경북대학교)

Q.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임상병리과의 임영웅, 경북대학교 3학년 박형진입니다.

Q. 대학생할 동안 자기 계발을 위해 어떤 노력과 활동을 하셨나요?

학점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학교에 남아 밤까지 공부하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공부기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친구들과의 모임들은 최대한 미뤘습니다.

Q.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팁이 있다면?

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매주 치르며 학생들의 수준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고시 전 마지막 한 주는 정말 책상 앞에 서만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모든 과목을 공부한다면 합격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Q. 코로나19로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까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카페나 학교 열람실을 이용하는 걸 선호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집중이 더 어려웠습니다.

Q. 코로나19 현장에서 많은 임상병리사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임상병리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셨나요?

코로나19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봉사정신이 있어야 지금의 상황을 참고 버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점을 본받아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앞으로의 각오,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 2학년 때는 구체적인 진출 분야를 못 정했으나, 병원 실습 때 생리기능검사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도 생리기능검사 분야에서 일하며 환자들 직접 소통하면서 좋은 검사환경을 만드는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의 임상병리사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이 수도권 내 검사소 73곳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임상병리사 회원 180명이 검체 채취 요원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병리협회는 지난 12월 23일, 서울 강북구민운동장에 설치한 강북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임시선별진료소에는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선별진료소와 달리 역학적 관련성이 없어도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구를 통과한 시민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세워둔 대기 천막에서 차례를 기다린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컨테이너 임시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료와 함께 검체 채취를 받는다. 컨테이너 선별진료소는 한쪽 면은 진료 공간으로, 반대쪽 면은 검체 채취 공간으로 사용한다. 시민들은 투명한 창을 통해 검체 채취를 받는다.

검체 채취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많아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컨테이너 밖에서도 2

명의 검체 채취 요원이 시민들을 맞이한다. 직접 사람들을 마주하는 만큼 페이스 실드를 포함한 레벨 D 방호복은 필수다. 정아지(26) 회원은 지난 12월 14일부터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됐다.

“코로 검체 채취할 거예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정아지 회원이 간단하게 안내한 후 검체 채취를 시행한다. “어휴, 이거 원래 이렇게 깊숙이 넣는 거예요?” 검체를 채취하는 시민마다 불편을 호소한다. “네 맞아요. 제대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일 또한 검체 채취요원의 몫이다. 검체 채취가 끝난 후에는 손 소독을 시킨 후 시민들을 돌려보낸다. 이렇게 한 명의 검체를 채취하면 바로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

강북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를 포함해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12월 23일 기준 총 754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기존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는 찾기 힘들었던 확진자인 만큼 어쩌면 큰 감염으로 변질 수 있었던 걸 조기에 차단한 것이다. 병리협회는 정아지 회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정(26)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사진: 강북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정아지 회원의 모습

Excellence in Molecular Diagnostics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코젠바이오텍

국내 최초 개발 및 공급

- 2020년 코로나19 • 독감 동시진단 (제외진단의료기기 1호)
- 2020년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1호)
- 2015년 메르스
- 2009년 신종플루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주)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주)코젠바이오텍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C동 1101호(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전화 : 02-2026-2150 | 팩스 : 02-2026-2155
kogene@kogene.co.kr | www.kogene.co.kr



정아지 회원 인터뷰

(26, 강북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근무)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보건소 임시 선별 진료소에 다니고 있는 정아지라고 합니다.

Q. 어떻게 이번 ‘코로나19 치료 및 대응’ 임상병리사로 지원하게 되었나요?

협회에서 지원에 대한 연락을 받아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처음인데 시민들이 잘 협조해줘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Q. 강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하루 몇 명의 검체 채취를 진행하시나요?

강북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평일 기준 1,000명 정도의 시민의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데 N명이 근무하고 있으니 250건 정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Q. 한겨울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서 있어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건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레벨 D 보호구도 처음 입어보는데 정말 운동을 ‘밀봉’하는 느낌입니다.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물도 되도록이면 안 마시려고 합니다.

Q. 검체 채취 과정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임상병리사에게 푼다는 말도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할 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깊게 넣냐’, ‘이거 잘못 찌른 거 아니냐’예요. 검체를 채취할 때 면봉이 생각보다 정말 코 깊숙히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다들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생생하게 남은 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 근무할 때의 기억이 가장 생생합니다. 지금은 하루 1,000명이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는 게 익숙하지만, 처음 근무했을 때는 정말 검사가 끝나지 않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업무 시간 내내 검체를 채취하다 보니 1,000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때의 느낌이 아직도 선합니다.

Q.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를 하면서 임상병리사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곳에서도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문이나 TV 등에서도 검체 채취하는 임상병리사의 모습을 종종 접합니다. 비록 재난 상황이지만, 임상병리사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 다들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Q. 이외에도 다른 임상병리사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다들 고생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익하세요!

박민정 회원 인터뷰

(26, 종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1일 금요일까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1년 6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12월 14일부터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박민정입니다.

Q. 현재 종로구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종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상황은 어떤가요?

대구에서 올라온 다음날 바로 선별진료소로 투입이 됐는데 특정 집단에서 발생했던 대구의 코로나 상황과는 너무 다르게 일반사람들의 감염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조금 충격을 받았 습니다. 생각보다 찾아오시는 시민 분도 많았고 엄청나게 추웠지만 종로구보건소에는 컨테이너 선별진료소를 마련하여 다른 보건소나 임시선별진료소보다는 비교적 따뜻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Q. 보통 하루 몇 명의 검체 채취를 진행하시나요?

최근 서울시에서 무증상자,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이나 교직원들의 선 검검사를 권고하고 있어서 하루 400명은 넘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Q. 이전에 대구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대구, 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나왔을 때도 검체 채취를 진행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아쉽지만 대구에서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상병리사 면허를 갖고 단지 병원 일반 하기보단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지난 3월에 코로나인력으로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이미 근무 중에 있었고, 다시 힘든 시기가 닥쳐온다면 꼭 지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계약이 끝날 즈음 공고를 뒀고 바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Q.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함께 날씨도 완전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무하시는 곳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고됨은 없으셨나요?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는 난방기를 켜놔도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나가는 기분이고, 손이 얼어서 키보드 타자가 느려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조금 풀려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등에 땀이 날 때도 있습니다.

Q. 근무하면서 환경 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일을 시작하지 이제 2주가 되었는데 응급으로 더 빨리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파서 온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받으러 온 건데 왜 대중교통을 타면 안 되냐 등등 조금은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화가 나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래 기다리셔서 심술이 나셨는지 대들 버려 고통을 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긴 줄에도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오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므로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회의감을 느끼고 자기 전까지도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잠에 듭니다.

Q. 12월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는데요. 지난 1주일 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리자면 위에 얘기했던 소리치며 화를 내던 사람이 기억에 남네요. 눈물이 그렇그렁 맺힐 정도로 억울했거든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도 사람이지만 좋은 기억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검사를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앞에 와서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사소하지만 위위가 되기도 하고 부뚱하며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더라고요.

Q. 방역 최일선에 계신 분으로서 다른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과 나누고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에 코로나 인력 의료진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교대로 근무를 서며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선생님들도 지금 계신 자리에서 맡은 임무 최선을 다하며, 같이 이겨냅시다.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인력 대책 촉구



코로나19 확산 속에 지난 11개월 간 최전선에서 싸워온 의료 인력이 극단적 노동 강도와 상대적 박탈감 속에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보건의료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대우행으로 심각해진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소진 상황을 호소하며 보건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실질적인 진료체계 구축과 중환자 병상·의료인력 준비 등 대확산 대비 조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대책에 대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감염병 컨트롤타워 설치, 파견·지원인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전 교육훈련,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충분한 손실보상, 파견인력과 기존 인력간 형평성 있는 지원 등을 촉구하며 현장상황에 기반한 진료체계 정비를 위해 긴급 면담과 현장 방문 간담회를 제의했다. 노조는 파견 및 지원인력과 관련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렸다. 이현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부장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파견인력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파견인력의 전문성 파악 없이 면허·자격만 충족되면 채용 및 배치되다보니 현장에서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파견인력의 사전 교육·훈련과 모집, 배치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긴급 면담 및 현장간담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여러 유관단체에서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지적

민감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를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유관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를 판단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검사법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입장을 통해 "검증한 신속항원검사의 예상 민감도는 41.5%인데,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11%까지 떨어졌다"며 "현장에서는 바이러스 양이 많은 환자만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원검사의 민감도가 높지 않고 거짓 음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 또한 높다"고 밝혔다. 한국역학회도 성명서를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제한적인 환경에서 보조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학회는 "신속항원검사는 낮은 바이러스 농도를 가진 환자에서 거짓 음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확진자를 선별 또는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잘못된 진단검사방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안심한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의한 추가적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역학회는 "일부 지역에서 전수 선별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이는 일회적 효과에 불과하며, 오히려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는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감염자를 진단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검사과정에서 방역 역량이 낭비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고려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는 응급실 등 일부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와 같은 지적들에 대해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정확성이 필요한 진단검사는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사용하되,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등 빠른 선별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중수본도 정밀도가 중요한 검사에선 PCR(유전자 증폭) 기법을, 정밀도보다 신속하게 부가외적으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신속검사법이 적절하다 보고 있다"며 "확진자가 나올 때 접촉자에 대한 PCR 기법을 통해 하루 정도 소요돼도 정확히 환자 찾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27일 0시 기준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9,931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 33명이 양성으로 나와 비인두도말 PCR로 재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16명만 양성이었다. 14명은 음성, 즉 위양성이었으며 3명은 검사자 진행 중이다. 신속항원검사서 음성으로 나온 9,898명에 대해서는 위음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한대학교 학점은행제
임상병리학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1년 과정 모집

- ▶ 우수한 점구성 - 망월사역(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 ▶ 장학혜택 - 다양한 장학혜택
- ▶ 역사성 - 45년의 역사와 전통



모집전공			
전공명	정원	지원자격	
임상병리학전공	80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예정자)	
▶ 모집기간	2020.01.18.(월)~2021.02.05.(금)		
▶ 등록기간	2020.02.17.(수)~2021.02.19.(금)		
▶ 납부방법	계좌이체(가상계좌)		
▶ 개강예정일	2021.03.02.(화)		
▶ 전형방법	선착순모집		
▶ 접수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문의	031)870-3813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021년 1월 중 http://life.shinhan.ac.kr에서 모집공고)			
학점은행 모집과정			
전공명	정원	전공명	정원
임상병리학전공	80	*사회복지학전공	40
간호학전공	80	부동산학전공	40
방사선학전공	80	체육학전공	40
		사회복지현장실습	160
기타모집과정			
경기도 주관 사업 과정	정원	지도자 과정명	정원
귀농귀촌대학	40	글로벌지도자과정	70
조경기대대학	40	동양의학지도자과정	40
		외식산업지도자과정	40

2021년! 인증샷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21년 1월 19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55호 당첨자]

● 이경희 회원: 2020년 12월의 병리협보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분들과 임상병리사의 권익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협회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배어 있는 것 같아 협보의 한글자 한글자가 되뇌어집니다. 서울시 내과의사회와의 임근 가이드라인 합의, 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상 수상과 쾌거, 10대 공약 이행사항 점검, 현장의 고충에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등. 2021년의 협보는 고충과 희생보다 코로나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회원 분들의 웃음 꽃 피우는 글들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만 가득하세요♡

● 이지숙 회원: 중소병원 여전히 근로기준법 위반 많다. 이 기사를 보고 지방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병리사로 많이 공감아 있습니다. 20여년을 개인병원, 준종합, 종합병원에 일하면서 병원이란 곳은 직원들을 노동자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것을 많이 겪고 봐 왔습니다. 일종의 소모품같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그래도 협회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후배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기대 해 봅니다.

씨젠의료재단, 2021 고객감동경영대상 질병검사전문 부문 6년 연속 수상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제 15회 '2021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전문서비스(질병검사 전문) 부문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객감동경영대상은 고객감동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소비자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며 한국언론인협회가 후원한다.

씨젠의료재단은 2014년 6월 품질 높은 검체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경남검사센터'를 개원했고, 2020년 1월 '대구경북검사센터', 6월 '광주호남검사센터'를 설립했다. 지역 검사센터는 실시간 검체 운송 및 응급 검사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재단의 앞선 질병검사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Seegene Korean Clinical Laboratories'(이하,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를 필두로 제2·제3의 해외 질병검사 검사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씨젠의료재단은 하루 3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분자진단 검사 역량을 갖추고 있고, 24시간 코로나19 분자진단 검사를 실시하며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사립의료기관 최초로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고, 한국형 드라이브루 · 워크스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분자진단 검사를 수행하여 카자흐스탄의 국가 방역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천종기 이사장은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재단의 활동들이 다시 한 번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차원 높은 질병검사 서비스를 창출해 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 매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재단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 의료 기관

2021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질병검사 전문 의료 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검사 품질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전문의, 석·박사, 임상병리사 등 9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진단의학검사, 분자진단검사, 진단병리검사, 연구용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4,000여가지의 검사를 통해 임상진료 및 연구를 위한 검사서비스를
 전국 병·의원,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씨젠의료재단 본원



부산경남검사센터



대구경북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I)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I)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